제주녹색당 제 5기 25차 정기운영위원회

* 일 시 : 2020년 10월 18일(일) 16:00
* 장 소 : 녹색페인트
* 운영위원 : 김순애 이진아 정화빈 신현정 반영경 고은영, 안재홍 현성미 진수은 (참관: 한은정 김철) 불참 황용운

1. 당원 및 조직 현황

1) 당원 현황

- 2020년 10월17일 기준 439명(9/14 대비 0 증가)
- 입탈당 현황(9/15~10/17)

구분	탈당수	입당수	특이사항(입탈당 사유 등)
	1	1	별도 정리

탈당사유	입당사유
개인사유(1)	기후위기 등의 의제(황용운 당원과 통화하다 입당)

2) 조직현황 및 활동 보고<별첨자료 3. p.8 참조>

- 9/17 원희룡퇴진 특위
- 9/20, 10/4 정책위원회 회의 (ZOOM)
- 9/26 담쟁이(페미니즘 책읽기와 걷기)
- 10/5 조직팀회의
- 9/22, 9/29, 10/6, 10/11 니체 읽기 모임
- 9/17, 9/22, 9/25, 10/3, 10/10, 10/13, 10/17 제주미래리포트팀 회의
- 10/18 청년녹색당 녹색정치 공부모임
- 10/18 녹녹한 책읽기 독서 모임

3) 전국운영위 회의 보고:

■ 시간 : 2020-09-26 오후 1시
■ 장소 : 온라인(구글 미트)
■ 성원 : 24명/참석 17명/불참 7명/참관 5명
■ 회의진행 : 성미선 전국운영위원장
■ 기록 : 김지호 전국사무처장 대행

■ 논의안건1. 임시 대표단 구성의 건
* 현 전국 운영위원장 임기종료(10/11) 후 새 대표단 선출될 때까지의 임시 대표단입니다.
=> 현 성미선 운영위원장님이 차기 대표단이 구성될 때까지 임시 운영위원장 역할을 맡는다. (전원합의)

■ 논의안건2. 차기 전국 공동운영위원장(공동대표) 선거 일정 논의
* 당헌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무위원 선거도 포함됩니다.
=> 11월말에 차기대표단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전에 약 3주간의 순회토론회를 진행하다. 그 외 상세 일정은 전국사무처에 위임한다. (전원합의)

■ 논의안건3. 온라인 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주문사항 1: 당규변경의 건
원안에 대한 표결:찬성(14명)/반대(1명)/기권(2명) : 서울 김영준, 경남 이정옥
=> 찬성이 과반수가 넘어 원안이 통과됨.
반대 의견: 공정성 담보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 공간이 좀 더 자유롭게 운영되는 게 좋다고 생각되어, 온라인 관리위원회 구성 자체에 반대한다. (울산 남교용)
기권 의견: 충분히 동의하나, 개정 문구가 충분히 취지를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서울 김영준)

주문사항 2: 온라인 관리위원회 구성안
수정안 제출 : 구성안(관리위원)과 관련해서는 전국운영위원회의 우려 지점을 전달하여, 온라인관리위원회 준비모임에서 논의 후 전국운영위원회에 전달하여 새로운 구성안을 제출한 뒤 승인한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 찬성(12명)/반대(1명)/기권(2명)
=> 찬성이 과반수가 넘어 수정안이 통과됨.

■ 논의안건4. 경기녹색당 2018년 공보물 비용 미상환액 처리의 건
=> 사전 설명과 논의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각 지역에서 추가논의를 한 후, 차기 전운위에서 다시 논의한다.

■ 차기 전국운영위원회 일정 => 10월 25일(일) 대전에서 개최한다.

임시 전국운영위원회 회의결과
■ 시간 : 2020-10-15 오후 8시
■ 장소 : 온라인(구글 미트)
■ 성원: 25명/ 참석 13명/불참 12명/참관 4명
■ 회의진행 : 성미선 전국운영위원장
■ 기록 : 정유현 조직팀장
■ 회순 변경=> 논의안건 1, 3, 2번 순으로 진행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함

■ 논의안건 1. 당무위원 선출을 위한 당규개정의 건
주문사항 : 아래의 당규개정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수정안1 제출(제안자: 서울 박제민, 전국 성미선 / 서울 박제민 철회)
④ 당무위원은 선거권자가 1인 3표(중복투표 불가)를 행사하여 선출한다.
⑤ 당무위원의 최소득표기준은 유효한 총투표수의 10%로 한다.

수정안2 제출(제안자: 청년 김혜미)

현행	개정안
5. 선거관리규정 제35조(선출방법) ① 공동운영위원장의 선출방법은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선출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1인 3표(중복투표 불가)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당명부를 작성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가산점을 적용하여 득표를 계산한다. 다만, 후보자 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순번을 부여한다. (중략) ③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최소득표기준을 둘 수 있다. ④ 나머지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를 선출하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5. 선거관리규정 제35조(선출방법) **① 전국당 공동대표와 당무위원 및 공직후보자는**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선출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1인 3표(중복투표 불가)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당명부를 작성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가산점을 적용하여 득표를 계산한다. 다만, 후보자 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순번을 부여한다. (중략) ③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최소득표기준을 둘 수 있다. **④ 당무위원은 선거권자가 1인 3표(중복투표 불가)를 행사하여 4인 이상 8인 이하를 선출한다. 다만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4인 미만일 경우 입후보 공고를 연장한다.** **⑤ 당무위원의 최소득표기준은 유효한 총투표수의 5%로 한다.** ⑥ 나머지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를 선출하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수정안2에 대한 표결: 찬성(8명)/반대(3명)/기권(2명)

=> 찬성이 과반수가 넘어 수정안이 통과됨.

■ 논의안건 3. 피선거권 기준에 관한 당규개정의 건

주문사항 : 아래의 당규개정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수정안1 제출(제안자: 서울 현영애)

(신설)2. 성폭력 혹은 가정폭력으로 상벌위 징계를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신설)3. 상벌위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은 자

수정안2 제출(제안자: 청년 김혜미)

현행	개정안
제22조(후보자 등록) ①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명부의 확정일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하는 서류를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후보자 등록) ①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명부의 확정일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하는 서류와 상벌위 징계여부, 상벌위 결정사항 이행여부를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은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정안2에 대한 표결: 찬성(11명)/반대(2명)

=> 찬성이 과반수가 넘어 수정안이 통과됨.
추가의견 : 해당사항은 이후 상벌위 당규에 추가하여 자격정지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청년 김혜미)

■ 논의안건 2. 당무위원 후보자 등록을 위한 추천인 수에 대해서 논의해 주십시오.
=> 제23조(후보자 추천) 5개 이상의 광역시도당에서 각 5명 이상의 선거권자를 포함한 선거권자 2%이상의 추천하는 것을 선관위에 제안한다. (전원합의)
추가의견: 5개 이상이 아닌, 10개 이상의 광역시도당에서 각 5명 이상의 선거권자를 포함한 선거권자 2%이상의 추천하는 것을 제안한다. (제주 정화빈)
추가의견: 선거인명부를 제공(당규 제29조, 제30조 참고)하고 이에 대한 시행세칙(활용범위, 방법 등)을 두는 것을 제안한다. (청년 김혜미)

2. 주요사업 및 연대활동

1) 지난 주요사업

● 10/5~10/10 당헌개정 당원 총투표

2) 연대활동

- 9/23 학생인권조례 제정촉구 필리버스터/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대표자 회의
- 9/24 한동평대해상풍력반대집회/탈핵도민행동 회의/노동안전과 현장실습 정상화를 위한 제주 네트워크 창립총회
- 9/25 진규범 당원 재판 선고
- 9/25 민중연대 대표자 실무책임자 연석회의
- 10/7 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회의
- 10/10 마린파크 돌고래 폐사 규탄 기자회견
- 10/13 제2공항 반대 피케팅(시청) *10/14 제동친 전활동가 천막방문
- 10/16 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피케팅

3) 논평/보도자료

- 9/16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논평
- 9/21 제2공항 사업 철회 촉구 논평
- 9/23 한동평대해상풍력 부동의 촉구 논평
- 9/24 제주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 비판 논평
- 10/13 제주형 뉴딜종합계획에 대한 비판 논평

3. 회계보고(별첨자료1 참조): p.7

4. 논의 안건

안건 1: 제주민중연대 참가단체별 제주지역 진보연합정치 전략(초초)안 토론 요청(별첨자료3. p. 16)

별첨자료 요약

- 주요 의제(노동, 농민, 여성, 4.3, 생태, 평화, 청년, 소수자, 문화, 자치...)에 대한 최소 강령 수준의 동의 전제

-단기적으로는 2022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선거연합체이며, 장기적으로는 제주사회의 진보정치 실현을 위한 단일한'정치적 결사체(?)로의 발전을 목표

- 외부에서도 2022 지방선거 대응 논의가 진행 중: 비민주당-반미통당에 동의하는 지를 기본 원칙으로 개인들의 정치적 결사체 구성 제안

- 연내에 민중연대 참가단체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서 진보연합정치의 상과 경로에 대해 토론하고, 최소 강령 수준의 의제를 제출하고, 전체가 합의

※ 제안주체 및 대상,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음

제안: 운영위에서는 2022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과의 후보단일화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질 것인지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

안건2: 도청앞에 천막당사를 치면서 제2공항 싸움에 가장 앞장 섰던 제주녹색당은 지금 시국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도민회의 회의록 요약

-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의회 중심의 도민공론화, 예산 심의가 맞물리면서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설계 단계로 넘어가려는 국토부·제주도와 이를 저지하려는 반대운동의 충돌
- 올해까지 기본계획 고시 저지에 성공할 경우 제2공항을 막아내는 결정적인 전기가 될 것이나 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될 경우 국토부는 설계 등 향후 단계를 압축적으로 진행하여 대선과 지방선거 전에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할 것
- 국토부는 환경부의 보완요구를 최대한 반영, 이행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여 (조건부) 동의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음
- 21년 예산에는 기본조사설계비(420-01)와 실시설계비(420-02) 항목을 동시에 편성: 원칙적으로 분리 편성해야 하나 시급성 이유
-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본질적 측면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개별 환경 쟁점에만 집중
- 계획의 적정성(규모와 대안) 등 본질적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부동의 해야 하지만, 철새도래지, 동굴과 숨골, 법정보호종 등 개별적 환경 쟁점에 중점을 둘 경우 국토부가 '성의'를 보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조건부 동의를 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이미 정무적 판단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정치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수용성을 근거로 도민의견 수렴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할 가능성
- 결국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도 도의회 중심으로 진행되는 도민의견 수렴 과정의 향방이 중요한 변수
- 도의회 중심으로 도민의견 수렴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할 경우 정치권에서 제동이 걸릴 수는 있음

- 청와대와 여당, 환경부 누구도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주도하는 도민공론화가 어떻게 되느냐가 제2공항의 향방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

도민의견 수렴 4자 실무협의 결렬 시 대응

- 시기 : 제주도-국토부-도의회 특위-비상도민회의 간 토론회 이후 도민의견 수렴 절차 이행 협의가 결렬될 경우
- 방안 : 제주도청 앞 기자회견 후 천막농성 돌입, 대표자 단식을 포함한 투쟁 전개

제안: 제2공항 투쟁 방향: 제녹당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싸움을 해야함. 도민회의는 도민 의견수렴 전략을 밀고 나간다면 제녹당은 코로나 19시대와 역행하는 제2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햐영가서 이미 4차례 보완 요청 될 정도로 엉터리인데 부동의 해야한다
방법: 국토부가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제출하면 1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텐트 농성(1인씩 돌아가면서)/혹은 더 유효한 방법에 대한 논의

안건3: 제주녹색당 운영위원회 시스템 평가 및 운영위원장과 권한과 책임에 대한 논의(별도자료 자료 참조)

안건4: 제주녹색당의 연대 원칙

-지난 세월호 연서명 제안 관련해서 운영위 톡방에서 짧은 토론이 오고 갔는데 녹색당 연대 원칙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길 원함
- 청와대에서 진행 중인 세월호 단식농성 관련 황용운 운영위원 제출한 안건을 병합하여 논의
1. 제녹당 당원 손피케팅 온라인 적극참여 요청
2. 제녹당 차원 성명서? 입장문?

안건5: 미래리포트팀의 TF 전환

- 과업: 2개의 미래 제주 시나리오 관련 (제2공항 건설 그후 & 정의로운 전환) 논평 발행 또는 연재
- 기간 12월 말까지/ 예산 월 3만원

<별첨자료 1> <2020년 9월 결산>

수입	이월금	11,107,083
	정기당비	1,590,090
	특별당비	
	후원금(개인 및 기타)	
	그밖의 수입(캐시백, 이자 등)	1,037
	총수입	**12,698,210**

지출	인건비	인건비	사무국(2인)	1,200,000
			회계	100,000
	소계			**1,300,000**
	사무실설치운영비	공과금 및 유지비	테이프	2000
		물품 구입비	피켓재료	9,000
	소계			**11,000**
	정책개발비	정책위지원	토론회 등	
			정책위모임(의제모임)	100,000
		연대사업비	분담금(민중연대, 차별연대)	50,000
		정책홍보비		
	소계			**150,000**
	조직활동비	의제/지역모임 및 기타 회의비	의제/지역모임	180,000
			기타 회의비	57,500
		회원사업비	영화제/필리버스터	94,000
		교육/행사 사업비		
		문자전송		
		여비		
		위원장활동비	정화빈	100,000
		홍보물 편집비	박진호	100,000
		기타(잡비)		
	소계			**531,800**
	적립금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9,10차)	215,800
	예비비	예비비	사고위로금(안재홍)	100,000

총지출	**2,308,600**
잔액	**10,389,610**
퇴직금 총적립액	**1,121,200**

<별첨자료 2 의제모임>

<table>
<tr><td>모임이름</td><td colspan="2">정책위원회</td><td>참석인원
(당원+비당원)</td><td>6명 (당원)</td></tr>
<tr><td>만난 때</td><td colspan="2">2020. 9. 20.(일) 21:00</td><td>만난 곳</td><td>ZOOM 회의</td></tr>
<tr><td>만난 이들</td><td>당원</td><td colspan="3">안재홍, 노민규, 반영경, 엄문희, 이희준, 이선자, 김순애(사무처)
불참: 노민규(몸이 안좋음), 김철(육지) 전서윤(객원)</td></tr>
<tr><td>기록</td><td>김순애</td><td>지원 / 참관</td><td colspan="2">김순애</td></tr>
<tr><td>나눈 이야기 - 함께 한 활동</td><td colspan="4"><논의사항>
관련 의제들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럼 제주도의 정책들만이라도 1차적으로 정리해보는 것은 어떨까?
허심탄회하게 진행 상황 및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자
멸치: 과제가 재미있긴 하다. 하고 싶어하는 일이긴 하다. 하지만 혼자 하니까 진전이 안된다. 제안할 역량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지 못했다. 선정한 과제가 너무 광범위하다.
지역 사회에 문제를 던지면 좋겠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제주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계속 가져가 보겠다.
영경: 재홍과 이야기. 여성 정치인 소개해줄 테니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제안받아서 질문을 잘 만들어갈 계획.
희준: 계획으로 따지면 이번 모임에서 장훈교 박사 초대해서 제주공동자원생활체계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받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 상 부담스러워서 다음 모임에서 그런 시간으로 하려 한다.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듯. SSK의 작업들은 정치적인 구체화된 언어로 가져가기에는 어려움. 공약수준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라도 공유해나갈 것. 기존 개발주의 전략이 아닌 새로운 전략 필요. 하지만 당장의 선거, 우리 시나리오에 적합한 언어로 나오기에는 시기가 많이 필요할 듯. 협업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선자: 각자 관심 있는 분야를 맡았는데 다른 분야에는 관심도나 이해도가 적다. 따라서 협업한다면 효과가 있을까, 내가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 내가 관심가지는 농업정책도 어려움이 있음. 개인적으로 외부적인 것을 안하고 있는데 여력이 없는 상황
순애: 목표가 조금 더 소박하고 단순화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말고 지난 공약에서 한발자욱이라도 더 나가면 좋겠다. 그것으로 의미가 있다.
재홍: 선자, 문희는 선택 분야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분야여서 천천히라도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것을 생산하기 전에 관련 법정 계획 등이라도 기본적으로 체크하면 좋겠다. 관련법, 관련 조례 등. 정리할 수 있는 자료 범위 만이라도 의견을 나누자

<결정내용>
오프모임은 한달에 한번 하더라도 온라인 모임은 격주로 하자.
- 다음 모임은 장훈교 박사 초청 이야기 듣고 나누기
- 개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관련 자료 정리라도 할 수 있는 만큼 하자(최소치)
- 최대치는 각자 상황에 맞게 하자
- 빈도를 자주 하게 되면 진전이 있을 것이다.
- 다음 2주 뒤에 줌회의(2주에 한번씩 모임, 오프모임과 온라인 모임 병행)
에너지 토론을 재홍이 준비하게 되었다. 그럼 재홍 의제를 대중교통이 아닌 에너지로 하는 것이 어떤가? 재홍이 지난 2018 에너지 정책 점검하고 에너지 쪽으로 정리하기로 함.</td></tr>
</table>

	다음 줌 회의에 재홍님이 정리한 에너지 관련 토론회 등에 대하 공유하고 의견을 나눠보자 그 다음 오프라인 모임에는 장훈교박사 초청 이야기나눔 그 다음 줌회의에서는 코스타리카 사례 등 살펴보기
다음 모임	- 다음 회의는 10월4일(일) 오후 9 줌

모임이름	**정책위원회**		**참석인원** **(당원+비당원)**	**6명 (당원)**
만난 때	2020. 10. 5.(일) 21:00		**만난 곳**	ZOOM 회의
만난 이들	당원	안재홍, 반영경, 김 철, 이희준, 이선자, 김순애(사무처) / 불참: 노민규, 엄문희		
기록	김순애	**지원 / 참관**	김순애	
나눈 이야기 - 함께 한 활동	**<논의사항>** - 재홍이 에너지 관련 지난 지선 공약 관련된 조례들과 관련 시행 계획 정리해서 텔방에 올림 - 이렇게 관련 정책들을 정리하다 보면 지난 공약 점검 및 디테일한 공약 제안 가능하지 않을까? - 관련 조례들 양이 너무 많아서 선택을 해야 함. 선택할 부분에 대해 판단해서 다음 회의에 논의하자 - 재홍이 올려준 폼을 기본으로 하고 그 양식에 맞춰 자료와 계획을 찾아서 리스트화해서 공유 - 기초자료를 찾는 것은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해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토론하고 녹색당의 내용을 생산하는 것은 정책위 협동 작업으로 진행하자. 기간을 정해서 한 주제씩 정리 - 10월에는 각자 역할에 맞춰 자료 정리하고 그것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11월부터 진행. 한 주제당 대략 2개월 소요 예정 - 공유 가능한 구글 드라이브를 생성해서 그 곳에 관련 자료 업로드(순애가 생성) - 김철: 자전거 정책이 새로 업데이트할 부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속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가? - 자전거정책이 단지 자전거만 연관되지 않으며 관련 조례들도 많은데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않다. 제주도가 현재 진행하는 계획들을 들여다보고 평가하고 살을 붙여야 한다.. - 현재 정책 평가, 실행가능한 로드맵 제안 필요. 자전거 관련 조례, 시행 계획이 정말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것인지 살펴보는 것만 해도 중요한 작업 11월부터 토론 시작(에너지)-1월(친환경농업)-3월(자전거)-기본소득을 넘어선 커먼즈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략(커먼즈를 정책화시킬 수 있는 의제를 한 두가지 선정하고 들어가야하지 않을까? 정책적으로 구현 가능하게)-여성정치(여성정치인-성평등 조례) 순서대로 - 문희와 민규에게는 재홍이 따로 연락 - 8,9월 정책위 회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기에 회의비는 반납(공항 선전전 등 계획되지 않은 당 예산이 사용된 상황 고려) - 10월말까지 에너지 관련 토론 계획서 내야하는 상황: 10/20일까지 에너지 관련 토론회 계획서 재홍이 작성 후 피드백 받기로 - 해상풍력관련 제주녹색당 논평에 대해 토론 진행: 제주녹색당이 해상풍력반대하는 입장으로 비춰질 가능성, 신재생에너지는 무조건 선이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 지금 진행되는 정책이 야기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할 수 밖에 없는 지금 상황/지금은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주민수용성·출력제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제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 필요, 제녹당 논평은 신재생에너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다. 구별 필요			
다음 모임	0월25일(일) 오전 11시(천막)/오후 1시 장훈교 박사와 커먼즈에 대한 토론			

모임이름	원희룡퇴진특위		참석인원 (당원+비당원)	4
만난 때	9월17일 13:30		만난 곳	대관원
만난 이들	당원	김순애 안재홍 황용운 노민규		
	비당원			
이끈 이(지기)	황용운	지원 / 참관		
나눈 이야기 - 함께 한 활동	민중연대에서 원희룡 퇴진 운동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고 진보당도 나서지 않음 제주녹색당 만으로 퇴진 활동을 하는 것은 큰 성과가 없다. 원퇴위 마무리 활동을 하나라도 하면 좋겠다 소환요구라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작년에 원희룡 퇴진 이유 목록 만들어보자 했는데 만들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 모두 원희룡 퇴진을 외치지만 그 만큼 절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원희룡 100대 실정 정리해보자: 안재홍 공약 정리: 노민규 10월에 만나는 것으로 하고..그 때 가서 이 모임을 유지할지 정리하자			
다음 모임은				
적은 이	김순애			

모임이름	현미채식모임	참석인원	4명
날짜	200912. 토, 12:30	장소	녹색페인트
만난사람	당원	용운, 보스, 수리, 김철	
	비당원	없음	
모임지기		지원/참관	
내용	● **다큐보기 : '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 ● **다큐내용 및 의견** - 천문학적 액수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의료, 제약, 식품 산업의 결탁과 부패 - 이들과 손잡은 보건기구들은 절대 예방, 자가 치유, 올바른 식단 등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는다. - '인간의 몸'은 이미 자본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것 같다. ● 식단: 단호박밥, 통밀샌드위치, 단호박야채 샐러드, 과일		
다음모임	미정		

<table>
<tr><td>모임이름</td><td colspan="2">페미올레 담쟁이</td><td>참석인원
(당원+비당원)</td><td>3(당원3)</td></tr>
<tr><td>만난 때</td><td colspan="2">2020.09.26.</td><td>만난 곳</td><td>인숙님 집</td></tr>
<tr><td rowspan="2">만난 이들</td><td>당원</td><td colspan="3">최희정, 양인숙, 이은정</td></tr>
<tr><td>비당원</td><td colspan="3"></td></tr>
<tr><td>이끈 이(지기)</td><td>최희정</td><td>지원 / 참관</td><td colspan="2"></td></tr>
<tr><td>나눈
이야기
-
함께 한
활동</td><td colspan="4">☆거슨세미 오름 오르기
출발 : 인숙님 집 버스정류소 10시20분
거슨세미오름 비자림숲길 걸으며 즐거운 대화, 가벼운 도시락
도착 : 거슨세미 오름 정상과 둘레길 걷고 주차장 도착 13시 30분

☆독서토론 : 고성리 양인숙 회원 집, 9월의 책「코로나시대의 페미니즘」
(김은실 외 12명 공저)

* 책 선정 이유 :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무너지고 여성과 소수자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남성중심적 경제체제를 여전히 강화하고 약자 소외가 심해지는 현재, 페미니즘의 방향을 고민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본다.
* 밑줄 긋기
-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에 관한 개념을 계속 변화시켜온 역사이고, ‘여성’에게 부가되어온 의미와 역할을 해체하고 새로운 의미로 ‘여성’범주를 확대하고 재구성해온 역사다.
- 여성 노동자의 조건을 규정하는 요인은 생물학적이기보다 사회학적이다. 그들이 여성이란 사실보다 그들이 놓인 ‘사회적 위치’가 더 문제이기 때문이다.
- 정체성 정치의 힘은 정체성을 본질로 만드는 사회의 관습 자체를 질문하면서 그 경계를 열어 다른 정체성과 적극적으로 연결될 때 더 넓어지고 강해진다.
- 코로나19의 경험은 인간의 취약함과 서로에게 건강을 빚진 연결성을 환기함으로써 이 오래된 돌봄 부정의를 변화시키는 공적인 계기가 돼야 한다.
- 페미니즘은 여성해방을 넘어 약자와 공존하는 법, 자연과 공생하는 법을 모색한다.
* 감상이나 비평, 생각 나누기
- 영영페미니스트 논의를 처음으로 접하고 요즘의 페미니즘 조류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다. 여성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여성이라 규정하면 여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
- ‘코로나시대의 페미니즘’ 이라 기대했는데 별로 새로운 것은 없었고, 전망이 평범해서 실망하기도 했다. 저자들에 따라 글 내용과 관심분야가 달라서 그런 이유도 있겠다.
-사회정의와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기보다 개인의 자유와 남성과 똑같은 권리찾기에 매몰된 영영페미니스트에 대한 저자들의 시각에 동의하기도 하지만, 그들</td></tr>
</table>

	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재난의 일상화로 사회적 약자의 삶은 벼랑 앞에 섰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여성화된 돌봄 노동이 그나마 조금 가시화 되었다는 생각이다. 돌봄의 가치를 겉으로 말하면서 사실은 무급노동이나 저임노동으로 여성을 착취하는 구조를 이제는 무너뜨려야 한다. 토건이나 개발, 디지털산업, IT보다 돌봄에 투자하면 일자리도 훨씬 많이 창출되고, 자연을 덜 훼손하여 지속 가능한 삶에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규정이나 정체성을 넘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나아가 생태계 전체와 연대하는 시각으로 자신과 서로를 바라보고 관계 맺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절실해졌다.
다음 모임은	10월 31일(마지막 토요일), 부산 갈맷길 걷기, 10월의 책「아픔이 길이 되려면」(김승섭)
적은 이	양인숙(총무)

<table>
<tr><td>모임이름</td><td colspan="2">제주 녹색당 조직팀</td><td>참석인원
(당원+비당원)</td><td>5(참관 1 포함)</td></tr>
<tr><td>만난 때</td><td colspan="2">10월5일 17:00</td><td>만난 곳</td><td>대관원</td></tr>
<tr><td rowspan="2">만난 이들</td><td>당원</td><td colspan="3">김영란, 한은정, 부순정, 현성미</td></tr>
<tr><td>비당원</td><td colspan="3"></td></tr>
<tr><td>이끈 이(지기)</td><td></td><td>지원 / 참관</td><td colspan="2">정화빈</td></tr>
<tr><td>나눈
이야기
-
함께 한
활동</td><td colspan="4">1. 제주녹색당 조직팀의 역할과 할 수 있는 역량은 무엇인가?
- 8월 조직팀 회의에서 <페미니즘>과 관련해 조직팀에서 매달 정당연설회를 주최하고, 관련된 행사를 찾아서 제녹당과 콜라보 해서 행사를 진행하자고 결정했었다. 그러나 제2공항이나 학생인권조례 등 제주녹색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심 이슈가 있고, 조직팀원들이 그 이슈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다보니, 그 중심 이슈에서 벗어난 다른 의제들에 대해서 활동하기가 힘들었다.
- 작년 말에 2020년 제주녹색당 조직팀 활동 계획을 짜면서, 기후, 채식, 농사 등 굵직한 주제들을 매달 정해서 당원 행사를 진행하자고 결의를 했었다. 그 중에서는 실제로 진행된 것들도 있지만, 제주녹색당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동떨어져, 당원들이 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계성이 조금 떨어진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한번 참석하고 끝나는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주녹색당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다.
- 매달 당원 행사를 주최하는 데에 따른 무리가 있다. 1) 매달 했던 '제주녹색당의 날'을 분기별로 하고, 2) 제주녹색당에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해보는 게 좋을 듯 하다.

2. 겨울 제주녹색당의 날 관련
- 여름에 박미영 당원의 귤농장에서 '검질 매기'를 제주녹색당의 날 행사로 하려고 연락까지 했으나, 참가자가 없어서 농활을 하지 못했다. 겨울에라도 일손을 도와야 하는 게 아닌가.
- 몇 년 동안 제주녹색당은 겨울에 귤판매를 통한 수익을 얻었었다. 이번에 농활을 할지 귤판매를 위한 노동을 같이 할지는 운영위와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결정사항
1. 제주녹색당의 날 행사 관련
- 일정과 장소: 10월 31일 토요일이나, 11월 7일 토요일 중에 택일하자. 두 날짜 중 <공간: 걸어서 4층> 대관 가능 날짜, 신현정 당원 참석 가능 날짜를 고려할 것.
=> 11월 7일 토요일, 걸어서 4층 결정.
- 프로그램 내용: 1) 당가 배우기 -> 2) 당원 인사/소개 -> 3) 평등문화선언문 낭독 -> 4) 제녹당 하반기 활동 공유 (활동 정리: 한보스님) -> 5) 의제모임 소개 (의제모임 활동 사진: 한보스님이 모아서 현성미에게 전달 / 사진으로 영상 제작: 현성미 / 가능하면 각 의제모임장이 자기네 의제모임 소개하면서 홍보) -> 6) 혁신위 활동 소개 (발표자: 신현정 / 혁신위 출범계기, 이제까지 진행상황, 결정된 내용, 앞으로 어떤 선거가 있는지 소개 등)</td></tr>
<tr><td>다음 모임은</td><td colspan="4"></td></tr>
<tr><td>적은 이</td><td colspan="4">현성미</td></tr>
</table>

제주 미래리포트팀 보고

1. 팀원: 고은영(팀장), 고춘자(신규 합류), 김 철, 반영경, 한은정 총 5인
2. 일시: 9~10월 간 총 10회 모임 (세부 내용 아래 참조)
3. 장소: ZOOM 또는 녹색페인트, 카페 등
4. 운영위원회 요청사항: 예산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5. 회의 목록

일시	단위	안건 및 작업 내용	결정 사항
2020년 8월 16일	운영위원회 임시회의	대안 메시지 모색 필요	대응팀 구성
2020년 9월 5일	기획논평팀	운영 범주 정하기 제2공항 논평 리뷰 숙제	기획 논평 작성
2020년 9월 10일	기획논평팀	제2공항 논평 리뷰 소감 브레인 스토밍	2개 리포트 중심 논평 발간 안건 채택
2020년 9월 12일	기획논평팀	논평 방향 및 범주 설정 팀 명칭 변경 논의	포캐스팅 / 백캐스팅 방식 2개 전개
2020년 9월 17일	기획논평팀	기획서 검토, 일정 합의 팀 명칭 변경 논의 팀장 논의	미래리포트팀 변경 TF 전환 요청 안재홍 일신상 사퇴
2020년 9월 22일	미래리포트팀	분야 별 담당자 선정	
2020년 9월 25일	미래리포트팀	개별 작업 팀 점검	
2020년 10월 3일	미래리포트팀	개별 작업 팀 점검 지표 살펴보기, 데이터 점검	
2020년 10월 10일	미래리포트팀	개별 작업 팀 점검 논평용 보고서 목차 설정 캐릭터 1차 설정	
2020년 10월 13일	미래리포트팀	일정 재구성 개별 작업 팀 점검	
2020년 10월 17일	미래리포트팀	개별 작업 팀 점검 전환 정책 토론 고춘자 당원 합류 일정 확인	

6. <제주 2035, 2개의 미래> 논평 10개 연재 프로젝트

"2035년, 제2공항이 건설된 미래와 정의로운 전환이 진행 중인 미래가 있다. 그 미래 속에 살고 있는 30대 청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이야기를 전달한다."

- 일시: 11~12월 2달 간
- 연재: 제주 도내 온라인 매체 1곳 협의 예정
- 메시지: 향후 10년 간 정치/정책이 좌우하는 제주의 미래. 녹색당의 제안.
- 작업 방식
  : 1단계 2개의 미래에 대한 내부용 보고서 발행
  : 2단계 보고서를 토대로 30대 청년 10명 캐릭터 설정
  : 3단계 10명의 삶에 대해서 제주녹색당이 관조하는 이야기식 논평 작성, 연재
- 간담회 예정: 10월 26일 내부용 보고서 브리핑 및 간담회 (가안)

- 보고서 목차 및 주요 내용

머리말 - 미래를 준비하며 보고서 작성 방법	1.5도씨 보고서 이후 기후위기, 세계적 저성장, 팬데믹, 탈세계화로 시민은 불안하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비전이 필요. 미래를 상상해보자.
1부 2020-2030 제주 전망 - 우리가 걸어온 10년 - 앞으로 전개될 10년 - 2개 방향	현황 분석 : 과거 10년 "착즙기(가칭)" 분석 : 향후 10년 간 저성장 예측과 이유 : 향후 10년 간 정치/정책의 역할 제안
2부 2개의 길 - 제2공항 건설 그 후 - 정의로운 전환 - 앞으로의 계획	정치/정책적 결단에 따른 2개의 길 제안 : 제2공항, 포캐스팅, 디스토피아, 황폐화 : 정의로운 전환, 백캐스팅, 재분배, 자급자족
결론 -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정치적 제안

- 10명의 청년 설정
: [상수] 나이, 지역(외국 포함), 성정체성, 기존 가족관계(다문화)
: [변수] 직업, 학력 수준, 혼인 여부
: [키워드] 농민, 난민, 퀴어, 전기 자전거 보급 사업으로 빵 터진 청년, 정치하고 싶은 여성, 카지노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 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아이, JDC 직원, 군인, 페인트공, 화북 공단(설비업-마을,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관련),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상담사, 전업 주부(정의로운 전환 사회에서는 사회보장체계 내에 편입-공유 경제 창출/이용자), 문화 예술가, 선생님, 호텔 매니저(다크 투어리즘 관광 기획자 겸 역사 전문가-성산일출봉), 숲 해설가

<별첨자료 3> 진보연합정치 제안(민중연대_초초안)

□ 왜 지금 진보연합정치인가?

2020년 지금, 제주도민들의 인내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절대 권력을 보장받은 제주도지사의 전횡은 제주를 투기자본의 자유구역으로 전락시키고 있고, 무차별적인 난개발과 환경파괴가 부동산 가격 상승, 대중의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20여년 이상 국회 권력을 틀어쥔 민주당은 정작 지역정치에서는 정치적 반대자의 역할은 포기한 채 오히려 기득권 세력과 야합하거나 방관자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소수의 적극적 당원을 제외하면 많은 대중들은 차선의 선택지로써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역 진보정치의 상황은 어떠한가.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로 제주지역에서도 진보정치(정당)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가 소실되어 왔다. 지방선거에서는 일부 의미 있는 득표를 획득하기도 했으나, 이를 진보정치에 대한 온전한 지지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자평이다. 진보정치의 지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나 대중들에게 유력한 대안정치세력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집권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이견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진보정치 실현의 가능성과 가치에 대한 설득이 이루어진다면 대중들의 선택지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의 전조이기도 하다.

난개발과 환경파괴, 무소불위 행정 권력의 남용,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전락한 삶의 질 등으로 제주사회의 모순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지금 진보정치가 새로운 사회의 설계자로 등장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시민사회에서 대안사회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더 이상의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 조직의 성격상 기획은 있으나 총괄적인 설계와 집행을 담보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시민사회 진영의 상당 수 활동가들이 정책실현을 명분으로 민주당으로 포섭되기도 했고, 회원 등 내부 반발을 우려해 구체적인 정치적 활동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상황에서 문제는 제기하지만 정치적 주체로 나서기는 한계가 분명하다. 역으로 진보정치가 확장될 여지는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난관은 존재한다. 무엇보다 다원화된 진보정치 세력의 현 상황이다. 2008년 분당을 시작으로 여러 과정을 겪으며 진보정당뿐만 아니라 대중조직 또한 여러 갈래길을 따로 걸어가고 있다. 물론 가치와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으나,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제주사회를 바로 잡아야 하는 책무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촛불로 집권한 민주당이 보수화-우경화 되어 가고, 낡은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수구세력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사회변화의 방향타를 잡고 대안적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후 보수양당 구도는 불변의 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파시즘의 징조까지 보이고 있으며, 선택적 정의만을 행사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의 망령을 확실하게 끊어내야 한다.

대중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각 진보정치 세력이 지금까지와 같은 행보로 자기정립과 대립에 자족한다면, 사회변화(변혁)이라는 목표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등대를 자처하면서도 지금은 횃불이 되어야 할 때이다. 이제 가치의 궁극적 실현을 위해서라도 진보정치의 지평 확장을 전술적으로 선택하는 담대한 결정을 요청한다. 언제 올지 모를 가능성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내고 확인시키자. 제주에서부터, 제주에서만이라도 중앙의 논리와 각자의 차이를 넘어 새로운 제주사회, 대안사회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 진보연합정치의 이름으로 놓여 지길 기대한다.

□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현재 제주지역 진보연합정치를 검토할 대상은 대략 진보정당과 계급기반 대중운동 조직, 영역별 사회운동단체로 볼 수 있다. 이들 중 진보연합정치를 함께 할 대상의 기준은 제주지역 기득권 보수 정치의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목표에 동의하고, 이후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체로 서겠다는 합의 여부이다. 또한 각자 이념과 가치, 운동의 방향 등에서 차이(異音)를 인정하면서도 지역 진보연합정치의 실현을 위해 최소 강령 수준 의제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의제의 동의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토론과 이해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합정치의 결과로 나타날 일부 조직의 불가피한 정치적 양보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의제 _ 노동, 농민, 여성, 4.3, 생태, 평화, 청년, 소수자, 문화, 자치...)

진보연합정치의 성격은 단기적으로는 2022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선거연합체이며, 장기적으로는 제주사회의 진보정치 실현을 위한 '단일한' 정치적 결사체(?)로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논의는 민중연대 내부에서 시작하되 최대한 외연을 확장할 것을 전제하고, 정세에 조응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민중연대의 틀을 뛰어 넘을 수도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선거 공동대응 준비단계에서 전국조직인 정당과 대중조직들의 내부 절차와 방침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제주지역 진보연합정치의 전망과 목표가 분명하고 결의 있게 세워져야 한다. 2022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통해 제주지역 진보연합정치의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고, 그를 토대로 제주지역 진보정치 정형 구축의 방안이 제출되어야만 중앙을 뛰어넘는 지역 연합정치의 명분이 마련될 것이다.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지역 연합정치의 상을 제시하고, 주도할 수 있는 단위는 민중연대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연합의 대상이기는 하나 여전히 정치적 방침을 세우거나 적극적 개입에 소극적인 시민사회진영이 연합정치를 주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민중연대는 비록 중도에 좌초하기는 했으나 직전 총선에서 공동대응을 결의한 경험이 있고 목표와 방향, 의제 선정 등 진보연합정치의 실현경로에 대해서도 치열한 토론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민중연대 소속 단체들이 각자의 의제에 맞춰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진보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진보연합정치를 제안하고, 주도할 여건을 갖고 있다.

한편 현재 민중연대 내에서 진보연합정치에 대한 구상이 논의되고 있는 취지와 유사하게 외부에서도 2022 지방선거 대응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민중연대의 방식과는 다르게 개인들의 정치적 결사체 구성이 제안되고 있는 데, 기본 원칙은 비민주당-반미통당에 동의하는 지 여부이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과 민중단체, 시민단체 및 활동가와 개인이 연합하는 경로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주지역 정치적 상황에 대한 판단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연합정치의 보다 세부적인 실현 경로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또한 진보정당의 우선권을 인정하며, 이후 주도적 역할보다는 기존 진보정치 세력의 보완재 및 연합정치의 매개 역할을 자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거대 보수양당 정치에 절망한 대중들의 분노는 곳곳에서 확인되어 왔다. 다만, 그 분노들을 정치적으로 결집시킬 그릇을 만들어 내지 못해온 것이다. 우선 민중연대 내부의 토론과 합의가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시민사회 진영이나 개별 활동가들의 연합체가 진보연합정치를 끌어 갈 처지가 될 수 없음은 누차 확인되는 바이고, 민중연대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연합정치의 당위성과 시의성, 이후 실현 방안까지 포함하는 전반적인 틀이 제시되고, 정치연합의 시작으로 당장 2022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경로를 논의해야 한다.

제주지역 진보연합정치의 이행경로를 대략적으로 예상하면, 우선 연내에 민중연대 참가단체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서 진보연합정치의 상과 경로에 대해 토론하고, 최소 강령 수준의 의제를 제출하고, 전체가 합의한다. 여기서 의제는 연합정치가 대중에게 제시하는 공약이 될 것이다. 민중연대 내부 합의 이후에는 시민사회 진영 및 개별 연합체에 제안을 하고, 마찬가지로 의제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합의된 조직들은 2021년 초 각 단체별 총회 등 강제력을 갖는 의결단위에서 선거연합을 포함한 진보연합정치 구성과 활동에 대한 인준을 받는다. 인준 후 2021년 상반기 중 지방선거 공동대응 조직(준비위?)을 구성하고, 후보 선출 방식과 구체적인 공동 선거대응 방침 등에 대해 합의한다. 이후 경선 등 후보 선출과 조율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후보 선출 직후부터는 모든 역량을 집중, 대선에 앞서 지방선거의 주도권을 끌어가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지방선거 직후에는 각 조직별 토론결과를 모아 전체 평가를 진행하고, 2024년 총선까지의 2단계 진보연합정치 실현의 경로를 설계한다.

(선거연합에서 정치연합으로)
(정치연합의 상은 모든 것을 열어두고, 중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상이 필요)
※ 2022년 대선의 경우에는 개입하지 않음.

※ 제안주체 및 대상,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음

1. 민중연대가 각 정당, 외부 정치조직 간의 연합을 제안하고 실현하는 방안
2. 민중연대에 각 정당이나 외부 정치조직이 가입하고 민중연대 자체가 정치적 결사체로 기능하는 방안
3. 민중연대 참가단체를 포함한 모든 단위가 소속과 상관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정치적 협상을 진행하고 별도의 정치적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

<별첨자료 4> 제주녹색당 운영위 활동 및 평가 자료